♥ 사랑방 기고문 **최우수상_ 박 찬 송**

작은 카드에서 비롯된 사랑의 나비효과

2019년 4월 1일. 처음으로 은평성모병원에서 신경외과 환자를 만나고 나서 지금에 오기까지, 이곳의 모든 간호사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병원에 적응하고, 여러 체계들을 만들어 가느라 바쁜 나날들을 보냈다. 그렇게 힘들고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 점차 안정기에 접어드는 중, 하반기 부서 내 사업의 일환으로 쾌유를 바라는 간호사들의 마음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퇴실환자 방문 카드"를 만들기로 했다. 직접 카드 디자인을 고르고, 카드로 쓸 종이를 구매하고, 카드 안에 들어갈 문구를 고심하여 정하고, 제작하기까지. 카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움직였고 드디어 완성본이 제작되었다.

퇴실환자 방문을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는 2019년 10월의 어느 날, 부서 차지로서 데이 근무를 마치고 중환자실 퇴실환자 안부를 묻기 위해 신규 선생님과 함께 이웃 병동을 방문했다. "선생님, 일주일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병동으로 보내드렸던 환자분이라서 잘 지내고 계실지 궁금해요" 신규 선생님은 퇴실환자 방문이 처음이라며, 기대에 찬 어조로 나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에게는 그저 근무 후 내가 해야 하는 일 이라는 부서 사업을 위한 사명감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우리가 방문한 환자는 뇌혈관이 막혀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이후에도 뇌부종이 생겨, 두개골까지 절제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젊은 아내가 있는 30대 남자 환자였다. 의식이 저하된 이후로, 기도 유지를 위해 기관절개술 까지 시행할 정도로 기본간호 요구도가 매우 높았고, 중환자실을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간호사들과 눈맞춤이 안되고 중환자실 천장만 바라볼 수 있을 뿐, 간병인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의식 회복이 더딘 환자였다.

1인실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병실의 문을 열자마자, 중환자실과는 사뭇 다른 상쾌함이 느껴졌다. 깨끗하고 신식인 병실 환경도 물론 그렇지만, 은평성모병원이 자랑하는 창문 밖 포레스트 뷰가 한 몫을 하는 듯 했다. 환자는 직접 간병을 하는 아내와 함께 침상에 앉아 있었고, 보호자는 마치 우리가 방문할 것을 예상이라도 한 양 따뜻한 수건으로 정성스레 환자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다. 환자는 보호자의 손길을 타고 전보다 많이 말끔해지고 두 분의 표정도 매우 밝아 보였다.

"OOO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환자실에서 환자분을 담당했던 간호사들이에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중환자실에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늘 그렇듯 우리의 소개를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불편함은 없었는지, 재활치료는 잘 받고 계신지 물었다. 보호자분도 반가운 기색을 내비치며 우리들을 맞아주셨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빠, 중환자실 선생님들이시래. 그때 기억나?" 보호자가 환자에게 물었다. 의식이 없었던 환자임을 기억하고 환자를 바라보는데 그때 환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리곤 입모양으로 "기억 안 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겐 매우 뜻밖의 일이었다. 'stupor(혼미)' 상태의 의식수준으로만 생각했던 환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할 정도의 의식 회복을 보이다니. 중환자실 안에서 의식혼돈과 사지 위약감이 있던 환자가 일반병실로 이실하고 난 후 호전되어 병원 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은 있었지만, 말도 못하고 누워만 있던 환자가 간호사들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도 꽤나 신선한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왔다.

"환자분 남은 치료도 잘 받으시고, 퇴원까지 조금 더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중환자실 선생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눈에 띄게 좋아진 환자의 모습을 보고 나서, 괜히 간호사로서 부족한 케어를 했던 건 아닌지 잠깐 생각도 해보았지만, 진심을 다한 간호의 힘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또한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렇게 환자 방문을 마치고 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또 다시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 동행했던 신규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이다.

"제가 계속 담당했던 환자분인데 그때랑 다르게 이렇게 말하고 앉아계시는 거 보니 제가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게 뿌듯해요. 환자가 좋아져서요."

이 말을 듣고 내 머리에 '뎅-' 하고 종이 울리는 것 같았다. 그간 일만 하며 정신없이 달려온 나에게 왜 내가 간호사가 되고 싶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할 만큼 신규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그렇게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우리와 크게 다를 것 없던 그 1인실이 상쾌하게 느껴졌던 건, 그 공간에 가득한 진심어린 사랑의 힘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신경외과 환자의 특성상 의식이 저하된 환자가 대부분인데다, 특히 중환자실은 급성기의 환자들이 주로 머무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후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퇴실환자 방문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 경험이 앞으로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는 나에게 다른 차원의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 환자의 가족들만큼의 사랑을 담아 간호를 할 순 없겠지만 이곳에 오는 모든 환자가 우리들의 할머니, 엄마, 남편, 동생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 간호하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되었으면,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진심이 모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작은 카드 한 장에서 시작했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열심히 일하는 간호사들과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을 이어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나비효과가 아닐까?